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서 대학이 수백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두고 여러 부문의 건축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과 학부들, 수십개의 강좌와 박사원, 연구소 등을 가진 종합대학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주체건축발전관을 잘 꾸려놓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대학의 강화발전에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수많은 건축물들마다에는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애국

심과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학졸업생들 가운데서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이 배출된 사실만 놓고보아도 부강조국건설에서 대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이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의 형성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창조설계하여 권위있고 관록있는 건축설계집단의 위력을 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창립후 지난 60년간 대학이 거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유능한 건축창작집단, 믿음직한 건설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인 평양건축종합대학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교육과 학전시판, 건축설계실, 미술실기실, 외국어시청각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최후대, 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능력있고 유망한 건설, 건축부문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교육과 생산노동, 리론과 실천

을 결합시키며 수재교육과 박사원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지방들에 있는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학적지도, 학술적지도도 맡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 종합적인 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해주며 원격교육체제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학생들은 당이 구상하는 사회주의문명국설계도를 자기가 작성한다는 자각과 건축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가들을 압도하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학생들은 설계탁에서 문명국의 래일이 그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부르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도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학의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는 회고모임이, 나이지리아에서는 로작독보회가, 베닌에서는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19일과 2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나호트카시의 회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시의회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필독문헌으로 정하고 로작학습을 통하여 그의 위대성을 절감하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미지의 압축축동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과시할수 있게 한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영생을 기원한다. 우리는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

지와 헌성을 보낸다. 나이지리아자력경쟁연구소 조 대리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 대한 독보회에서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운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다는것은 철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조 책임자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신것은 인류사주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맹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책동이 약화되고있던 시기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

립하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활동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시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도이칠란드, 네팔, 베닌에서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칠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회고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압축축동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여왔다.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계시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할것이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일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국과 혁명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중과 신뢰의 표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데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확인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온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그 어떤 력사의 팽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시였다.

조선인민이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네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김정은 원수는 조선통일의 구성 국제사회계가 격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조국통일사상을 계승하시여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민족통일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국제사회계는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온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그 어떤 력사의 팽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놓으시였다.

조선인민이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네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는 조선통일의 구성이다.

그이께서 계시여 가까운 앞날에 세계는 강성명영하는 통일된 조선을 보게 될것이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가르치심은 그 누구에게나 명백한 진리이다.

통일문제는 조선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그 어떤 외세도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하신 민족분열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들은 조선통일을 위한 확고한 이정표로 된다.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였으며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그에 대해 조선인민의 통일열망에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는 대망이라고 찬양하였다.

민주평화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은 21세기에 와서도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령도가 부과됨으로 분열된 고통을 당하고있다. 형제적인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의 괴뢰치성의 극치로 되는 인위적인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킬 날은 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울이시는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므로 하여 조선은 통일된 나라로 발전하며 자기의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신천군에서 휴양소 새로 건설

신천휴양소가 새로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운안의 로력혁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들을 위한 휴양소에는 생활시설과 유희오락실, 식사실, 문화휴생시설 등이 잘 꾸려져있다. 조선로동당의 훌륭한 인민적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 계획밑에 군에서는 휴양소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설계가 완성된

데 맞게 건설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자체보장을 앞세웠다.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본받아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울 일로킴으로써 건물들의 기초공사와 벽체쌓기, 내외부미장을 짧은 기간에 해제했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내부장식과 조명설치를

특색있게 하고 가구와 비품들을 손색이 없게 갖추어놓았다. 주변에서 나오는 광천을 리용한 목욕탕과 휴양생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밀폐식폐지우리, 남새온실, 양어장 등의 건설도 질적으로 끝냈다. 새로 일떠선 휴양소에 입소한 휴양생들은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 22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시국미사를 가지고 헌 집권세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하였다.

시국미사에서 발언자들은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민중을 위하지 않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세상을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선거개입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패한 권력을 교체할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권력기관들을 선거에 적극 개입시키도록 한 리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국미사에서는 성명이 랑독되였다. 성명은 부정선거의 직접적이고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집권자가 아직도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듯 발뺌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진실규명을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선거를 권력기관까지 동원하여 불법과 부정의 방법으로 치르는것은 독재사회에서나 있을수 있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헌 집권자의 퇴진을 주장

부정선거의 장본인인 헌 집권자가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시국미사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사퇴하라》, 《불법선거규탄, 대통령사퇴》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이러 참가자들은 초불집회를 가지고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미림땅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말발굽소리

평양의 교외 미림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대승마농사기지가 일떠섰다.

62만 7000여㎡나 되는 방대한 면적의 부지에 건설된 승마구락부에는 승마주로와 승마훈련장들, 승마제식보급실과 피로회복원, 봉사소,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를 비롯하여 승마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 있다.

뛰어난 건축술과 문명국으로도 약하는 조선의 현실을 뚜렷이 파시하며 미림승마구락부가 훌륭히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전부터 인민군대에서 리용하고있는 기마훈련장을 인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 것을 구상하시고 해당 부문에 형성안을 만들도록 과업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2년 11월 어느날 실례로해를 위해 현지를 찾으셨다.

몸소 말을 타시고 원주로의 긴 구간을 달리시며 주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그만하면 주로의 상태가 좋다고, 승마운동을 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이곳을 현대적인 승마장으로 개건하면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

을 더 잘 꾸리고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고 싶어하시는 그의 마음속 진정이 어려웠던 말씀이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승마구락부를 훌륭히 꾸려놓으면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정신육체적으로 단련할뿐 아니라 생의 희열을 더한층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훌륭히 꾸릴 방향과 방도들도 밝혀 주셨다.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승마농사기지를 건설할 것을 밝히신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현지를 찾으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다.

2013년 5월 건설장을 찾으시어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수준에서 단숨에 일떠세울 방도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3개월후인 8월 또다시 그곳을 찾으셨다.

그이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에서 갖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적물보존실을 잘 꾸리고 실내승마훈련장, 승마학교, 봉사건물 등 건축물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

설중에 있는 건물들을 통나무로 지은 것처럼 설계한것만큼 실감이 나게 천연재료를 리용하여 외벽처리를 특색있게 할뿐 아니라 내부시공도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말타기에 편리하게 잔디 및 토사주로를 잘 닦으며 실내승마훈련장에 툭밥같은것을 두들겨 깔아주고 야외에 원형승마훈련장을 더 건설하고 토사주로서 말을 탈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승마주로 곳곳에 사람들이 말에서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물들도 설치해 주시고 승마운동을 하고나서 피로를 풀 수 있게 현대적인 기능회복시설을 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승마구락부를 공원화, 식물원화 확대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시었다.

무더운 삼복에도 건설장을 찾으시고 농민 문제가 있을세라,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리고 마음쓰신 원수님이시었다.

세계적규모의 승마구락부가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차려지도록 하기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었다.

삼라만상이 잠든 한밤중에 건설장을 찾으시어 건설의 질을 최

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시고 그대로 미흡한 점이 있으신듯 그로부터 몇시간후인 이른새벽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날도 있었고 미림승마구락부마도드안과 승마복장식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밤에도 보시고 새벽에도 보시며 그 완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승마구락부의 계단란간, 벽체의 색깔과 타일에 이르기까지 자그마한 부속점도 없도록 불철주야 야고고를 바치신 그의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에 떠받들려 미림승마구락부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세상에 자랑할만한 인민 사랑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설 수 있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많다. 하지만 그 건설과정은 물론 원공후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령도자와 그렇듯 깊은 인연을 맺고 인민들에게 차려지는 창조물은 없었을 것이다.

카나다에 사는 박수연동포는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본 자기 기록 하기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었다.

《미림승마구락부를 방문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현대적시설과 함께 구석구석

많은 품을 들여 너무나도 멋있게 꾸였습니다.

기마선생님들의 훌륭한 설명과 함께 아름다운 말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승마구락부가 될 것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드림 없는 의지이다.

얼마전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라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을 위해 더 크고 더 새로운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어 이 땅위에 행복의 웃음꽃은 더 활짝 피어날 것이며 인민들은 대대손손 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미림땅에 울리는 말발굽소리는 이 땅의 인민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전하는 행복의 말발굽소리, 만복이 오는 소리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현저지도의 그 나날에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미림승마구락부를 리용하게 될 인민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주도록 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깊이 관심하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어느날 실내승마훈련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훈련장의 여러곳에 있는 대형거울을 보시고 거울뒤면에 옷걸이를 만들어주

어 사람들이 불편없이 승마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뿐만아니라 승마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편리하게 할수 있게 음향설비를 갖추어주며 사진봉사기지도 꾸리도록 세심히 이르시었다. 설계가들을 비롯한 해당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세부에 대해서도 그이께서는 무심히 대하지 않으신것이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완공된 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배수체계에 대하여 물으셨다. 대답을 못 찾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해당부문 일꾼들을 일별하시며 그이께서는 배수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주로에 물이

흘러들어 파손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면밀한 배수체계를 세우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품위있게 건설된 창조물답게 크고작은 구조물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빈틈이 없게 꾸릴데 대해 강조하신것이였다.

이 새로운 천막휴식장

승마구락부에서 유별히 눈길을 끄는것의 하나는 인공못옆에 있는 천막휴식장이다. 건설이 한창일 때 현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공못옆에 천막휴식장을 설치하여 승마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무더운 여름철과 한겨울

에 천막안의 온도를 보장하는 문제와 통풍문제, 천막안에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통나무로 된 식탁들과 의자들을 놓는 문제 등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세심히 가르쳐주신 그의 관심속에 지금과 같이 설계에 없던 천막휴식장이 꾸러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혁신적 성과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한층 앞당기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오늘도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날론앞에서 사람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이룩해놓으신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에 대해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

고귀한 업적, 민족번영의 확고한 토대

세계적으로 심각한 금융 위기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고 1%의 가진자, 특권층들을 반대하는 99%의 시위가 그칠새 없는 오늘날 자체의 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공화국은 외부의 그 어떤 경제적 파동이나 악랄한 봉쇄에서도 끄떡없이 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즐기차게 내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걸음을 한걸음 떠지면 그만금 조국의 전진이 떠지게 된다고, 날새나 보아가면서 편안한 걸음을 할수 없다고 하시며 민족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계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지식경제시대를 떠밀고나가는 강력한 인재력량이 장성하였고 공화국은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 나라로 자기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있는 것이다.

지심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것처럼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자립경제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 땅위에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를 생각하며

인류가 지향하는 리상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동유럽과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을 때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는 이미 더이상 쓸모없는 비과학적리념으로 되었으며 자본주의만이 과학적리념으로서 영원히 존속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붕괴된 동유럽나라들에서 자본주의를 맞본 민중들이 다시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되었고 재생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에 《미국인의 뒤를》로 여겨지던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인들이 그렇게 열을 올리며 주장했던 《사회주의의 종말》론이 얼마나 황당했는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결국 강건할것처럼 과학이며 진리이며 력사의 옳바

른 방향으로서 인류가 리상사회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대세로 되고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혁명적기치로서 민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에 의해 실현된다. 사회적소유제도의 산물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극복할수 없기때문에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기초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로 변화발전되어야 한다는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진보적정당들과 민중들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쏘련까지 붕괴되었는데도 쏘련보다 작고 인구가 적은 이북에서는 어떻게 사회주의가 그대로 보존되고있는지 의아해하며 이북의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되었다.

이북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중중심의 이북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실천하면서 확고히 고수하고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가 파산된것이라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분석하시었다.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리상사회를 갈망하는 인류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력사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것이다. 민중이 자주성을 쟁취해나가는 력사의 방향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김일성주석이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 김일성주석의 단결의 정치를 실현한 독특한 이북사회주의, 전체 민중이 하나의 동지의 세계,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삶의 보람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사는데 주체사회주의의 특징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주체사회주의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군대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민중을 사회주의수호의 길로 인도하셨다. 선군정치는 오늘날 주체사회주의의 존엄과 번영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수호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령도도 크지 않은 이북이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고도 계속 전쟁을 막고있는것은 선군정치만이 살아있고 력사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것이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이 현대적인 고공무기로 무장하고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실현한 독특한 오늘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중앞에는 그들과 파국하게 대항하여 싸워 자주적인 삶을 살것이나 아니면 노예생활을 할것이나 하는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인류가 그렇게 오래동안 소망해온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길은 주체사회주의의 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김 현 환(재미동포)

해마다 이맘때는 김치를 담그는 무렵이다. 별방이나 산간벽지, 도시 그 어디라 할것없이 집집마다에서 겨울나기차비로 김치를 만드는것은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예로부터 겨울내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로, 반식량으로 김치를 만드는 민족전통은 오늘날도 여전하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빼어놓을수 없는 부식물의 하나이다. 아무리 귀한 음식을 다 갖춘 식탁이라 해도 빠지지 않는것이 김치이고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김치를 곁들이고 떡이나 지짐같은것을 먹어도 김치국을 마시는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습이다. 우수한 전통이나 아름다운 풍습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을 장려하며 길이 물려가도록 하는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치는 부식물중에서도 가장 특색있는 부식물이라고 하시면서 김치음식의 고유한 맛과 식생활습을 면면히 이어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들리셨다. 김치는 우리 인민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음식의 하나라고, 우리 인민은 밥상에 김치가 있어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김치와 떡, 국수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신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연한 일출기가 붙어있는 어린 무우로 만든 김치를 총각김치라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부르도록 하라고 이르시어 총각김치라는 말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인민들은 떡을 먹어야 명절을 친것 같다고 하고 밥상에 김치가 있어야 좋아한다. 김치는 우리 인민이 즐겨

대회때 주최하는 김치를 각국 선수들과 대표단, 관광객들을 위한 중요음식의 하나로 정하기도 하였다.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시합중전에서도 김치는 신선로, 평양은반 등 30여종의 식품과 함께 출품되어 금상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의 하나로 인공증되면서 국제합의를 운행하는 려객기의 식사에도 조선김치, 외국의 한출판물이 선정한 세계5대 건강식품의 하나에도 조선김치가 있다. 최근 로씨야 이따르-따쓰르진은 조선에서 가져왔고 김치를 담그는 계절이라고 하면서 식생활에서 김치의 리용과 그 약력적가치, 외국에서 인기있는 식품의 하나로 되고있는데 대해 전했다. 민족음식문화전통과 계승발전의 계인인 위대한 령도주의의 손길이 깃든 김치음식을 통해 대대로 물려지는 민족의 우수한 음식문화와 민족정서를 다시금 본다. 본사기자 리 설

김치로 보는 음식문화와 전통

보살핌에 의해 식생활전통과 풍습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김치는 수십여가지를 헤아리며 겨울에는 주로 통김치, 동치미 등을 담근다. 총각김치라고 하면 조상전래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지방에서 채 머물지 않은 어린 무우로 담그어오는 김치의 일종이다. 그런데 한때 사람들은 총각김치를 발간무우김치로 부르다가 언젠가 그 사실을 아

는 제26차 국제올림픽경기

시국미사가 시사하는 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속에 지난 22일 카톨릭교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산하 전주교구가 현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가지었다. 카톨릭교에서 시국미사는 계속 되어왔지만 현 집권자의 사퇴를 표명한다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커다란 정치적파동이 일고있다. 청와대와 《세누리당》 내에서는 《대선불복》이나, 《종북세력》들의 야합이니 하고 떠드는가 하면 야당을 비롯한 정계와 각계에서는 《왜 천주교사제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사퇴를 요

구하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알자면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싸고 남조선에서 거의 1년째 지속되고있는 정치적공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려진것처럼 처음 정보원내 직원들의 《대굴사건》으로 시작된 《불법대선개입사건》은 정보원은 물론 군부와 보훈처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면서 각계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도처에서 보수계당의 부정협잡선거를 규탄하는 대중적인 촛불집회와 시위, 시국선언문발표와 기자회견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투쟁이 전개되고 여기에서는 현 집권자의 사과와 사죄주모자처벌을 주장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여기에 청와대와 《세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그 어떤 사과나 범죄행위

에 대한 인정은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왔는가 하면 반대세력들에 대한 《종북몰이》 그런즉 청와대와 《세누리당》은 왜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현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카톨릭교에서는 《마땅히 웨쳐야 할자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것》이라는 구절이 통용된다고 한다. 지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현 당국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돌들이》 소리지르며 일어설게 될지 모른다. 《유신》때도 《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나선 종교계를 《빨갱이》, 좌익으로 몰며 탄압했지만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때도 종교계까지 떨쳐나선 인민의 거세찬 투쟁열기에 독재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했다. 남조선 현 당국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퍼지면서 《정권》위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유신》때도 《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나선 종교계를 《빨갱이》, 좌익으로 몰며 탄압했지만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때도 종교계까지 떨쳐나선 인민의 거세찬 투쟁열기에 독재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했다. 남조선 현 당국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이제는 종교단체에까지 《종북》 딱지를?

남조선에서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적공방이 지속되고있는 속에 최근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것이 《종북세력》이다.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벌리는 촛불집회도 《종북세력》의 배후조종》이요,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견과 불만을 터뜨려도 《종북세력》, 심지어 합법적인 정당도 《종북세력》... 이제는 현 《대통령》의 사퇴를 표명한다고 해서 종교단체까지도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는 판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22일 현 《대통령》의 사퇴를 표명하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산하 전주교구의 시국미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세누리당》, 일부 보수단체들은 한 원로신부의 발언내용을 문제시하면서 《종북세력》이니, 《정의구현사제단》이니라

정보원은 물론 군부와 보훈처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특대형사기국으로 락인되자 《우리가 그동안 싸우며 이뤄왔던 민주적대들이 무너지는것을 그냥 지켜볼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마침내는 시국미사를 열고 현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보수집권세력은 이러한 정의의 투쟁을 《종북행위》로 오도하면서 그들을 《종북신부》로 몰아대고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노릇인가.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며 현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면 그가 어떠한 목적을달면든, 단체이든, 합법적정당이든 가림이 없이 모조리 《종북세력》으로 몰리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남조선현실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수많은 개별적인사들과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탄압하다 못해 이제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까지 《종북구현사제단》으로 몰아가는 현 보수집권

남조선에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이 날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있는 속에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 그로 인한 정국혼란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지난 21일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고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정보원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인터넷에서도 여론에 영향을 주는 120여만건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과 《정보원법》에 명백히 위반되는것이므로 수사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나서고있다. 민주당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밝혀진 《대선》 개입 불법인터넷 글 120여만건은 3.15부정선

거를 풍가하는 사상초유의 조직적범죄행위》라고 락인하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저항에 직면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국민공개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나섰다. 정의당도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 《수사방해와 위악으로 더이상 덮여버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검수용과 범죄자처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비난의 목소리는 사법계에서도 울려나왔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은 총체적범죄이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있다.》고 하면서 《화교안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검찰의 상층부들 즉시 교체해서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

개입사건》이 《리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관여부를 밝혀야 되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고 까맣히면서 이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들고나왔다. 하여 지금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리명박의 법적책임으로까지 번져지고있다. 한편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싸고 보수집권

남조선의 한 신문이 《박근혜 《정부》 첫해는 민주주의후퇴, 민생파탄, 정치실종》으로 규정하면서 《현 《정권》의 1년은 정치참사로 기록될것》이라고 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다실이 권력탈취를 위한 보수집권세력의 정치모략사건으로 인한 정국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현재와 같은 말 그대로 뒤죽박죽의 사태에 이르렀다. 사상 류태없는 부정협잡선거로서의 지난 《대통령》 선거의 위대한 내막이 계속 드러나고 사제가 종교계에까지 파급되자 급해맞은 보수집권세력이 《종북》이니 《대선불복》이니 하며 위기를 수습해보려고 발광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비열한 부정선거행위를 펼칠것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시하며 한사코 독선적으로 계속 나을수록 정국의 혼란은 갈수록 심화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시 파멸의 선고를 내리라

김송림

남을 따라 기승을 부린다 《종북몰이》의 미친 바람이 《유신》 독재의 광풍이 사납게 불어치고있다

진보와 애국을 한사코 말살하려는 보수패당의 악랄한 만행 정의와 진실이 죄가 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불의 현실을 바로 알려주는 자주언론은 《내부의 적》으로 민중의 대변자 진보정당은 《내란》을 꾀하는 《종북세력》으로

부정선거무효를 주장한 종교단체는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는 살벌한 탄압의 광기가 남녘땅을 뒤덮고있다

어이 알라 레일은 또 어느 단체, 어느 세력이 독재의 피비린 칼날을 받을지

민주수호의 초불을 든 그 누가 《종북》의 과녁이 될지 《유신》 독재의 광풍이 사납게 불어치고있다

사기와 날조로 민중을 기만하다 못해 민주를 바라고 통일을 원하는 언론도, 정당도, 사회단체도, 종교단체도 《종북》으로 짓밟는 패륜패덕의 무리들

본노가 러져오른다 원한이 풀어번진다 삭발과 단식으로 초불로 지퍼지는 항거의 불길로 《유신》 부활의 칼바람에 맞서는 남녘이 일떠섰다

철추를 내리라! 민주와 민심에 역행하여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는 보수패당 파쇼세력에게 준엄한 파멸의 선고를 내리라! 오, 정의와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불법선거행위로 인한 혼란과 위기

바빠난 《세누리당》 것들은 검찰과 민주당사이의 《모종의 합의》니, 《정략적행태》니 하며 전전공중하고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있는 한 회의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군세이비사령부부 대공작업을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수시로 청와대에 불리위기사서 심리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정보원대선

세력과 종교계와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교구사제단 신부들이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불법선거규탄 및 대통령사퇴촉구시국미사》를 진행하고 《리명박의 구속과 박근혜의 사퇴》를 촉구해나섰다. 여기에 개신교와 불교계도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남조선정국은 그야말로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더욱더 빠져들고있다.

《지금 국내외엔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 25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한 소리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어떻게 되어 청와대 안방에서 튀어나왔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2일 남조선카톨릭교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산하 전주교구가 《불법선거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한 신부는 《은갖 불법적인 《대선개입사건》으로 합법적이지 못한 《대통령》, 《《유신》 시대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있는지는 누구에게나 쉽게 리해가 되는 소리이다. 말하자면 현 집권자는 권력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항

《국민분렬》의 장본인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오죽 답답하면 사제, 종교계까지 나서겠는가.》, 《어두운 시대에 신부들의 용기가 정의의 초불을 밝히고있다.》며 권력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반면 《세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종북신부의 망발》, 《이것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인가.》하며 비린칭을 듣고있다. 이런 속에서 청와대 안방에서 나온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있는지는 누구에게나 쉽게 리해가 되는 소리이다. 말하자면 현 집권자는 권력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항

기판들의 부당한 《대선》 개입사실자료들과 결부되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남조선민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면에 《세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불법대선개입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종북》이니, 《내란음모》 사건이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오며 《몰라기》하다 못해 나중에는 《NIL포기》이니 뭐니 하는 따위로 북남수비상봉담화록까지 내 들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조, 중, 등》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물론 극우보수단체들까지 합세하여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을 가리워보겠다고 언동을 부리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대선》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대선》문제를 놓고 큰 1년동안 정국이 마비된 때는 없는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남조선보수당국에 있다. 그들이 《불법대선개입사

《국민분렬》을 조장하는 장본인은 현 보수집권세력들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민심의 요구를 《대선불복》과 《종북세력들의 만동》으로 묘사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다 못해 그에 대한 탄압을 공공연히 떠들고있으니 이것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며 파쇼통치에만 매여달린자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덮어버렸다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이 《종북》소동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그들의 파멸의 길만 재촉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정부》는 올바른 농업정책을 실시하라

서울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 투쟁 전개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이 22일 서울시 청암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부당한 농업, 농민말살정책을 규탄하였다. 집회에는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2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어려운 속에서도 굳게 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통성투쟁 전개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 핵성성인들이 25일 《국회》 건물앞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통성투쟁을 전개하였다. 통성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공영방송이라는것이 박근혜사퇴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의 시국미사에 대해 《역

전지역의 농민들이 힘을 합쳐 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은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서울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본사기자



현 집권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몸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1)

재중총련의 대, 애국의 대를 곳곳이 이어가는 동포청년들

《통일신보》 편집국에서는 이번 11월 18일 제4차대회를 계기로 재중동포청년들이 이념·종교·지역·계층을 뛰어넘어 단결의 길을 열었다. 그 기행기를 이번호부터 연재형식으로 편집한다.

평양에서 리룩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내다보니 조국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무연한 벌판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압록강의 푸른 물줄기가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나라를 떠났던 그 세월이 압록강을 건너, 저 멀리 두만강을 건너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선조의 뼈가 묻혀있고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만리타향에 뿌박히 출어졌던가. 세월은 가고 세기도 바뀌어 오늘을 재중동포사회에서 젊음이 있어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애국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포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궁금증을 달래는데 비행기는 어느새 심양 비행장에 들어섰다.

심양, 중국동북의 력사가 깊은 도시이다. 근 천만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있는 이 대도시의 최근간 더욱 몰라보게 되고 있다. 비행장에 내려 차로 한참 달리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건물이라고 하고 연합회와 청년연합회의 일꾼들이 달려나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대회가 진행될 총련합회 청사에는 벌써 베이징, 길림, 목단강, 연길을 비롯하여 중국각지에서 사는 수많은 동포청년대표들이 모여서 상봉의 기쁨들을 나누고 있었다.

11월 18일 재중조선인청년운동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남긴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제4차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공화국의 해외동포친화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일본조선유학생동맹 등 조국과 해외에서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를 낭독소개된데 이어 김영녀위원장 총결기간 청년연합회의 사업총화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존엄이 최상의 높이에서 펼쳐지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제4차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연합회가 지난 제3차대회후 총결기간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청년연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진실한 해외청년조직, 애국의 대들보가 되도록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 피눈물의 바다속에서도 억세게 일어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원수님의 사상과 정으로, 백두의 피줄기로 보다 굳게 이어진 해외청년조직보다 강화발전되었다고 하면서 총결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청년연합회조직을 부단히 확대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간데 대해 말하였다.

또한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말하였다.

그는 언제나 해외동포청년들을 사랑의 함포에 안아 뜨거운 정과 열로 이끌어주시며 이 세상 누구도 바라지 못했던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재중청년연합회는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빛내고있다고 하면서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해외청년전위대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가 끝난 후 토론들이 진행되고 청년연합회의 규약수정이 토의되었으며 새 지도기관이 선거되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조국의 국가적기념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축하편지와 결의편지를 삼가 올리고 전체 재중조선인청년들의 순결한 마음이 담겨진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제4차대회의 모습이다.

에서 동포청년들은 살고있었던 것이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조국의 국가적기념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축하편지와 결의편지를 삼가 올리고 전체 재중조선인청년들의 순결한 마음이 담겨진

고 말하였다. 사진 및 도서전시회를 보기 위해 멀고먼 길림에서 우정 열차를 타고 왔다는 동포청년 김옥순은 자라거나 그림과 보고싶은 곳이 조국이라고 하면서 조국방문의 기회가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흥분에 겨워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사는 재중조선공민들과 동포들의 깨끗한 마음을 읽으며 전시회장을 함께 돌아다니는 우리들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본사기자

신문도 정성껏 마련하여 삼가 올린 청년연합회의 성원들.

지난 시기 중국각지에서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공화국 창건 65돐을 비롯하여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들과 뜻깊은 기념일들에 기념보고회, 도서전시회, 예술공연, 불멸의 꽃전시회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와 모임들이 진행되어왔는데 이 준비사업에 언제나 앞장서는 것은 김련, 리혜영, 량금해, 박미옥을 비롯한 동포청년들이었다.

리국화, 김향옥, 방영신을 비롯한 동포청년들은 지난해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을 맞아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원덕에 심는 사업도 진행하여 동포들의 찬양을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은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청년절경축행사에 재중조선인청년대표단을 불러주시고 몸소 자신의 고향에 불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도 저마다 이야기하며 뜨거운 감정을 터쳤다.

조국의 튼튼발전과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청년연합회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기울이고있는 노력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최첨단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중요대상을 마다에 찾아가 물심양면의 지원

을 로력사업으로 조국청년들과 발걸음을 함께 해나갔으며 리국화, 김일남 등 많은 청년들이 실속있는 애국지원으로 조국에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과 지성을 바치었다.

북과 남에서 민족통일행사가 진행될 때면 대표단을 파견하여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신념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군 한 청년연합회와 동포청년들이 있어 민족의 자주통일위업도 힘차게 추진하고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과 4월 내외외전세력의 새 전진도발책 등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행진쟁의 불기름이 밀려오던 준엄한 시기에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가 재중조선인청년동맹을 무어 조국인민들과 한전선에 서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분연히 떨기해나선것은 애국의 값높은 행동으로서 지금도 겨레 누구나 찬양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참으로 격정없는 들을수 없은 이야기였다. 그들의 진정어린 목소리에서 몸은 비록 해외에 살아도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를 간직하고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 재중동포청년들의 순결한 정신세계와 애국의 넋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지금도 대회장에 쩌렁쩌렁 울리던 동포청년들의 씩씩하고 열정적인 토론들이 잊혀

지지 않는다.

《세상에겐 썩어빠진 사상과 낡은 시대적조류에 물젖어 사회적우환거리로 되고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재중조선인청년들은 조국청년들의 씩씩하고 활력있는 기상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주위업의 계주봉을 역세게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장 활력있는 대오로 위력떨치고있다.》고 궁지에 넘쳐 토론하던 리국화 청년연합회 사무국장.

《우리들은 청년연합회를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선으로 간직한 동포청년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불같이 토로하던 김영녀 청년연합회 위원장.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까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길에 어 자기의 있는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나간다.》고 결의한 심홍광동포청년.

단동역에 내와 떠나는 우리들 따듯이 배웅해주며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속으로 굳게 다진 결의대로 조국이 애고 동포들이 아는 해외청년일군으로 살며 일해가겠다고 말하던 단동들의 한성우청년.

우리는 그들과 약속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본사기자

조국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사진 및 도서전시회 연일 성황리에 열려

전시회는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동포들로 하여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김종미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중앙지부협회 회장은 전시회장을 돌아본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사진전시회장을 돌아보니 나날이 번오되고 비약하는 조국의 발전상이 한눈에 안겨와 심심과 용기가 북돋아

진다. 우리는 해외에 살아도 따사로운 조국, 부강하는 조국이 있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기승을 부리지만 천출위인을 모시고 일심단결과 불태의 굳결, 튼튼한 자립경제가 있어 내 조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본다. 다시 가서 선물물놀이장에도 가보고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도 실컷 타보고싶은 심정이라

단동시에서 온 청년대표 문태원은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여 개선청년공원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 아래 평양시를 비롯하여 조국의 모습이 더욱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면서 빨리 조국에 다시 가서 선물물놀이장에도 가보고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도 실컷 타보고싶은 심정이라



전시회에는 공화국의 해외동포친화위원회 일꾼들과 최은복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회장, 김광훈 중국 심양시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영사가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러 온 청년대표들과 총련합회의 중앙 및 지구협회 일꾼들, 각계층 수많은 동포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에는 공화국의 해외동포친화위원회 일꾼들과 최은복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회장, 김광훈 중국 심양시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영사가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러 온 청년대표들과 총련합회의 중앙 및 지구협회 일꾼들, 각계층 수많은 동포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나는 놀랐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어린이병원들을 많이 보았지만 유류아동병원의 건물과 설비들은 나를 놀래우기에 충분하였다.

아마도 그런 병원을 내가 살고있는 나라나 발전된 유럽나라들에 보았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아동병원의 주소는 다름 아닌 공화국북부였다. 서방사람들의 눈에 《고립된 나라》, 《문사는 나라》로 비쳐졌고있는 그 땅에서 나는 세계적수준의 아동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훌륭한 병원을 보게 되었다.

6층으로 된 유류아동병원은 연건축면적만도 3만 2 800여㎡나 되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는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의 면적이 6 700여㎡인것을 볼 때 평양의 유류아동병원은 거의 5배나 큰 셈이다.

그곳에는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치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들은 물론 일원한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들과 놀이장, 휴식장들도 꾸려져있었다.

도 했다. 병원에는 멀리 지방에서 환자들을 후송해올수 있게 마련된 직승기착륙장도 있었다.

오소오소, 구석구석 많은 품을 들였다는것이 알렸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는 나로서는 이런 병원이 얼마만 한 자금이 들었을까 하는 셈법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사회인 북에서 국가적투자로서 이런 병원을 건설하였을것은 변한 사실일 것이다. 하다면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북이 아무리 무상치료를 실시한다 해도 치료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놀이장, 휴식장 등 봉사시설까지 갖추어진 이런 곳에서는 돈을 받지 않을수가 없을것이다.

이런 생각들에 나는 병원의 한 의사에게 이곳에 입원해있는동안 환자가 지불하여야 할 돈액수가 얼마인가 물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아동전문병원들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로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남조선의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의 경우 885만US\$의 적자에 시달리고있으며 총북대학교어린이병원은 재정난으로 해서 아예 일반병원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그렇수밖에 없을것이다. 어린이환자치료비가 1만 8 000US\$이상으로 어른에 비해 3배나 비싸니 부모들속에서는 자식들이 병이 나도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가 많지 못한 병원은 자연히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버지들속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보육기에서 나오기도 전에 도망쳐버리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정책에 의하여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문화정서생활기지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흥룡히 꾸러진 공원들도 그중의 하나이다.

로라스케트라는 바람도 이 공원에서서부터 일어났고 60층층을 노래하는 로인들의 기쁨도 이 공원과 더불어 날로 커가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아담하면서도 산뜻하게 꾸러진 공원이 있다. 대동공원이자. 쌀쌀한 바람이부는 림동이 지났건만 공원안에는 새 품종의 잔디들이 파릇파릇 돋아있어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준다. 대동공원에선 아동놀이장, 풍구장, 배구장, 마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 등이 꾸려져있는데 그 어디나 사람들로 꽉 차있다.

이곳 공원의 리영실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하루평균 수백명이 공원에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고 한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저마끔 배구장에 모여들어 응원열기를 높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감독기라도 한듯 《선수》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열심히 경기를 《지도》하고있다. 몇진 타격이 성공할 때마다 몸짓, 손짓까지 해가며 경기를 응원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마치 오랜 기간 함께 지낸 한마을사람들같다. 공원

공원들마다에 기쁨과 랑만 넘친다

에서 체육경기도 하고 유희 오락도 하는 과정에 구면친구처럼 된 것이다.

리영실관리원은 대동공원에서 등, 인민반대항쟁기도 자주 진행되곤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동공원과 경사동 주민들의 체육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말하였다.

공원에 찾아와 체육활동을 마음껏 벌리는 과정에 서로 돕고 이끄는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로동의 희열, 창조적 열정도 더욱 솟는듯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는다. 보면볼수록 훌륭히 꾸러진 공원을 자기 집트락삼아 몸도 마음도 튼튼히 단련하며 보다 문화적이며 랑만적인 생활을 꽃피워가는 사람들의 행복만 모습이다.

상흥아동공원에 펼쳐진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상흥아동공원은 한창 뛰여놀 아이들의 놀이터를 두고 깊이 마음쓰이며 몸소 부지까지 잡아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손길 아래 일떠선 공원이자. 그런 사연깊은 공원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더욱 훌륭히 꾸러졌다.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러진 분수터며 동물조각, 배구, 정구, 풍구, 마드민톤을 할수 있는 체육장도 좋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아동놀이장이다.

회전그네, 배그네를 타고 풍선이 터지며 승백배기로 종합유희기재들을 리용하는 소학교, 중학교학생들. 그가운데는 어머니들과 함께 온 한살, 두살집이 어린이들도 있다.

갓 걸음마를 댄 어린이들이 리용할 그네까지 갖추어져있어 깨끗이 해빛쪼이기도 할겸 그네도 태울겸 공원에 나오군 한다는 어머니들은 집앞에 공원이 자리잡고있으니 정말 좋다고 한결 같이 말한다.

어린이들속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림성관놀이터는 유치원생들로부터 소학교학생들까지 탈수 있게 되어있다. 광복거리공원의 김철숙관리원이 하는 말이다.

한집안식솔처럼 다정히 줄거울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랑만넘친 모습은 조선식기와를 엮은 의랑과 정각 등이 자리잡은 팔팔공원에서 찾아볼수 있다.

낮에도 밤에도 흥성이어 공원에서, 그 공원에서 끝없이 퍼져나가는 웃음꽃은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치는 기쁨과 랑만이 안아온 행복의 웃음꽃이다.

김순정



린듯공원에서

체육강국건설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성과들

* 전국 체육 과학 기술 성과 전시회 진행 *

얼마전 평양에서는 체육부 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각급 체육단 과학기술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체육 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체육부문의 11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140여건의 프로그램들과 12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 및 체육기자재, 많은 의약품 및 영양제들이 출품되었다.

전시회에서 특별히 인기를 끈 것은 나라의 체육과학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이룩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종목별경기분석프로그램 《세계패권》을 내놓았다. 축구, 럭비, 농구, 배구, 정구, 체조 및 물에 뛰어들기를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여개의 국제 및 국내경기에도 도입되어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체육과학원 체육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체육심리훈련 및 조종프로그램도 체육 선수들의 심리검사와 평가에 기초하여 그들의 심리훈련을 컴퓨터로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출품한 선수들의 운동량과 운동세기, 심폐기능상태를 손전광기를 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육체적운동능력평가체계는 값비싼 기구나 운동기계가 없이도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실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천리》 1.0, 평양국제체육학교 교육지원프로그램, 탁구 선수의 학적조종지원체계 《해성》 1.0, 체육성생방향 정보봉사체계, 반도평교육지원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체육의 모든 공정을 정보화, 과학화하고 체육과학기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는데서 가치가 큰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나라의 체육발전적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질 좋은 체육기자재들도 출품되었다.

이런 전시회에 신의주체육대학에서는 비타민 A, E, 리놀, 배당체 등을 배합하여 체육인들의 육체적운동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효능 높은 고려영양료를 만들어 내놓았다.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만든 체육선수들의 몸상태를 최고상태로 높일 수 있는 아미노산체유염료와 기능성비타민, 평양제약공장에서 만든 스프롤리나염료, 오갈피회내기단물, 두릅오미자차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종목별경기분석프로그램 《세계패권》을 내놓았다. 축구, 럭비, 농구, 배구, 정구, 체조 및 물에 뛰어들기를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여개의 국제 및 국내경기에도 도입되어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체육과학원 체육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체육심리훈련 및 조종프로그램도 체육 선수들의 심리검사와 평가에 기초하여 그들의 심리훈련을 컴퓨터로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출품한 선수들의 운동량과 운동세기, 심폐기능상태를 손전광기를 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육체적운동능력평가체계는 값비싼 기구나 운동기계가 없이도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실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밖에 체육정보처리체계 특히 배구구동, 롱구구동, 육체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체육심리훈련 및 조종프로그램도 체육 선수들의 심리검사와 평가에 기초하여 그들의 심리훈련을 컴퓨터로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출품한 선수들의 운동량과 운동세기, 심폐기능상태를 손전광기를 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육체적운동능력평가체계는 값비싼 기구나 운동기계가 없이도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실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전시회에는 신의주체육대학에서는 비타민 A, E, 리놀, 배당체 등을 배합하여 체육인들의 육체적운동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효능 높은 고려영양료를 만들어 내놓았다.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만든 체육선수들의 몸상태를 최고상태로 높일 수 있는 아미노산체유염료와 기능성비타민, 평양제약공장에서 만든 스프롤리나염료, 오갈피회내기단물, 두릅오미자차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호평 받는 새형의 판형컴퓨터 《룡흥》

최근 통약산정보기술교류소에서 개발한 새형의 판형 컴퓨터 《룡흥》이 사용자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용속 통약산정보기술교류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판형컴퓨터 《룡흥》은 다매체열람기능, 편의기능, 문자입력기능, 언어설정기능, 기능유회기능, 체제설정기능을 비롯한 폭넓은 과일관리기능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사무처리를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대백과사전, 다국어사전, 조선말대사전, 교육도서, 조선로리대전집, 도로리정보사 등 다양한 봉사도 제공하고 있다.

CPU 동작주파수 1GHz, 주 기억기 512MB, 내부기억기 8GB, 외부기억기 16GB, 화면크기 7in, 축전지 동작시간이 6시간인 판형컴퓨터 《룡흥》은 휴대하기 편리하고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단편 소설

순결한 마음 (5)

글 주 광 혁, 그림 김 윤 일

지금 저렇게 열성적으로 말하고 있는 순애, 그도 역시 꿈많은 처녀여서 마음속 꼭꼭 숨어있었던 오늘을 이처럼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는 막 그를 껴안고 싶었다.

《글쎄?》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파괴적방어반사로 형성되는 공포심에서 오는거예요. 하지만 그 반사를 적극적으로 반사로 형성시켜놓는다면 밝고 명랑한 소리를 길게 뽐을 지도 몰라요. 사담처럼 노래는 못해도 종다리처럼 지중델지도 모르죠.》

나는 그만 웃고말았다. 짐승이 종다리처럼 지중델지도 모른다든 말보다는 그것을 흉내내는 모양이 더 우스웠던 것이다.

《있!》

순애의 손가락이 내 입술에 빗장을 걸었다. 한참이나 나는 흔들리는 배집을 다잡았다.

《언니.》

《왜?》

더운물그릇에 손을 담고서 보던 순애가 말했다.

《물이 식었군요. 다시 덥

혀오겠어요.》

《응.》

물그릇을 들고나가는 순애의 뒤모습을 정겹게 바라본 나는 《평화》의 잠실안에 손을 넣어 온도계를 꺼내 보았다.

잠실안은 《평화》의 해산에 좋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시 온도계를 넣으려던 찰나에 잠실입구에 떨어져 있는 수첩이 눈에 띄었다. 무척이나 정성들여 장식했던 건만 보품도 많이 일어난 순애의 일기장이었다.

갈갈거리는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것같은 활달한 필치가 페이지마다 빼곡이 들어앉아있었다.

조리실쪽에서 물그릇들을 옮기는 달그락소리가 날뻐 사위는 저녁이들에 싸여 고요하였다.

수첩을 집으려던 찰나 내 이름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은 어쩔수 없이 수첩속으로 내 눈길을 끌었다.

...

나는 오늘만큼 간단히 서늘해진적은 없었다.

명옥언니가 아니었다면 어

비극의 가요 《홍도야 울지 말아》

일제의 식민지독일이 날로 심해가던 1937년, 서울의 동양극장은 며칠동안 부녀자들의 울음속에 물든다.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보며 주인공 홍도의 기구한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안은 관중들의 슬픔에 젖은 오열이었다.

관중의 태반이 흥도와 같은 운명을 사는 여성들이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극단 《청춘좌》에서 창조형상하여 무대에 올린 신파비극작품이었다.

연극은 흥도와 심영철과의 사랑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홍도의 기구한 운명을 펼쳐보인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험악한 세상, 돈많은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깨끗한 판을 짓밟고 사랑마저 빼앗겨야 했던 홍도의 기구한 운명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패화된 현실을 예리하게 파헤친 연극은 무

대에 오르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서울에 있던 《한성권변》이란 업체에는 생존을 위해 유흥가에서 노래를 파는 수백명의 기생들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동양극장에서 이 연극이 공연되는 9일간 저저마다 연극구경을 가는 바람에 식당, 로리점들이 문을 닫아 열을 러렸던 것이다.

더욱이 이 노래가 유명해지게 된것은 《한성권변》의 18살난 한 처녀가 한강에 몸을 던진 자살사건이 신문에서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자라나 매춘업자에게 팔려 유흥가에서 노래와 웃음을 팔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처녀는 연극전편의 주제가 《홍도야 울지 말아》를 들으며 흥도와 닮았는 자기의 운명을 두고 비관하던 끝에 씩어빠진 세상을 저주하며 한강에 투신자살하였던 것이다.

홍도의 불행한 운명을 노래한 대중가요 《홍도야 울지 말아》는 사람들속에 급격히 유행되면서 노래를 구입한 레코드판이 10만장이라는 대성공을 올려 그 제작자들은 돈방석에 올려앉았으나 비극의 주제가는 그대로 가슴아픈 비극을 낳았으니 이것은 망국이 가져온 눈물겨운 현실이 아닐수 없었다.

협심증때 구급대책

○ 옷몸을 높인 상태로 높히고 절대 안정시킨다.

○ 옷단추는 벗기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가볍게 눌러준다.

○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어준다. 이 약의 효과 지속시간은 30~40분이다. 1시간안으로 효과가 없으면 1알 더 넣어준다.

다만 명옥언니의 뒤를 따라 달리던 생각부터가 기억에 있을뿐이다.

매체지들이장까지는 불과 몇분걸리지 않는 거리였어도 나는 온몸의 힘을 다 쥐여짜야만 했다.

매체지란 놈은 절대로 놀래우지는 안되었었다.

더구나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정황에 맞닥들린 매체지들은 대상이 짙음은 사람이든 집단적으로 공격하기때문이었다.

《사진현장》에 도착한

있었던 것이다.

매체지새끼들도 늘 심심하던차에 자기 형제들과는 다른 족속이 나타나자 《이크,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게 됐는걸.》 하는 식이었다.

《평화》가 목덜미와 꼬리털을 뺏뺏하게 세우고 뒤쫓자 새끼매체지들은 슬레잡기라도 하는듯 흩어졌다가는 한쪽으로 모여 꿀꿀거리다가 《평화》가 달려가면 또 흩어졌다.

《〈평화〉, 이리와. 〈평화〉!》



나와 명옥언니가 아무리 찾아도 《평화》는 매체지 사냥에만 신바람난 모양이었다.

오래동안 잠재해있던 선조들이 물려준 사냥기질이 온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가서

고려청자가가마

평양민속공원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슬기를 보여주는 고려청자가가마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기의 가마유적만 해도 수십여개소에 달하는데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고려청자가가마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가마유적으로 기초하여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고려청자가가마는 고려시기가 청자를 구워내던 가마의 구조와 형식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이곳에 있는 고려청자가가마는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좌우에 벽돌벽을 쌓고 여러개의 칸을 연결하여 만든 궁륭식가마형태로서 자연송풍을 리용하여

필요한 높은 열(1000℃ 이상)을 얻을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도 한번에 많은 량의 자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어있다.

길이 38.9m, 너비 1.8~1.9m의 고려청자가가마는 제일 앞에 불칸(연소실)이 있으며 4개의 가마칸(소성실)과 굴뚝으로 이루어져있다. 불칸은 소성간에 필요한 열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서 솥(참나무, 소나무 등)을 원료로 하였다.

소성간은 그 사명과 용도에 따라서 작은칸과 큰칸으로 되어있는데 작은칸에는 주로 갑자기 넣는 자기(장식적성격을 띤것)들을 넣으며 큰칸에는 일상생활에 쓰

인 도기와 용기류들을 넣게 되어있다.

고려청자가가마의 간벽밀에는 각각 15cm정도의 열구멍(창구멍)이 있으며 매 칸의 열벽에는 나무를 넣거나 자기들이 구워지는 상태를 알아보는 여러개의 구멍이 있다. 매 칸을 통과하는 화염은 가마칸의 밑으로부터 나와 천정을 따라 뒤로 돌고 그 아래로부터 나와서 다음 칸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불길이 한번 위로 오르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게끔 한 방식을 도염식이라고 한다. 첫번째칸에서 소성할 때에는 많은 연료와 시간이 요구되지만 두번째 칸부터는 이미 가열되어있으므로 연료소비량도 감소되고 소성시간도 단축되며 거의 연속적으로 소성할수 있었다.

고려에서는 이전 시기의 도자기생산기술과 경험에 기초하여 각종 자기를 생산하였다. 이렇듯 우수한 자기가마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자기는 그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하여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겼다.



본사기자

조국강산의 귀중한 재부 - 천연기념물

우리 나라에는 경치좋은 산과 강하천이 많고 지리, 지질, 기후조건이 좋아 지하자원과 동식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 하많은 재부들 가운데는 공화국의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잘 보존관리되고있는 천연기념물들도 있다.

천연기념물이란 특이한 식물과 동물, 진기한 자연물들 가운데서 학술적으로나 풍치상으로 의의가 있는것들을 국가가 설정하여 보존하는 대상을 말한다.

천연기념물가운데는 희귀한 동식물이나 특산동식물, 특이한 지리, 지질대상 등이 있다. 현재 공화국에는 수백개의 천연기념물들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주제 44(1955)년 12월 13일 내각결정 제93호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주제69(1980)년 2월 18일에 《천연기념물을 철저히 보존관리할데 대하여》에 관한 정부원칙서 제27호를 관보내어 수백개의 천연기념물들을 제정공포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새로운 천연기념물들을 적극 찾아내고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조국강산이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가운데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목란도 있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강서약수도 있으며 세계적으로 공화국에만 분포되어있는 특산종인 클락새와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상갈아 예로부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구룡포도 있다.

군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담고있는 목란꽃은 조선의 문화로 되고있다.

목란은 8~9월에 두벌꽃이 피는것이 특징이다. 열매는 9월경에 닭알모양의 검붉은 색으로 익는다. 독특한 꽃향기는 고급향료로 이름높으며 충실한 열매는 기름이 많아 기름원으로 되고 청초한 잎사귀와 줄기, 뿌리는 귀중한 제약약료이다. 우리 나라 북부고산지대를 제외하고 그 어디서나 자랄수 있으며 해로운 벌레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위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는 또한 금야은행

나무를 들수 있다.

금야은행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은행나무이다. 이 나무는 함경남도 금야군 동흥리에 자리잡고있는 안불사뒤 언덕진 곳에 있다.

이곳에 뿌리내린 때로부터 이 나무는 지금까지 2000여년의 년륜을 새겨오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40여m, 밑동둘레는 16m, 나무갓의 직경은 동서남북으로 수십m, 나무그늘의 면적은 1800㎡나 된다. 금야은행나무는 멀리서 보면 작은 산갈고 나무밑에 들어서면 깊은 숲속에 들어선것 같아 불수룩 웅장한 느낌을 안겨준다.

이렇듯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천연기념물들은 산은 산마다 명산이요, 골은 골마다 수정같이 맑은 물 흘러내리는 내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겨레의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적당히 먹어야 할 음식물

- 맛내기

사람의 하루 맛내기섭취량은 6g이다. 이 량보다 많이 섭취하면 피속에 글루타민산 함량이 많아져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생식계통도 나쁜 영향을 받을수 있다.

- 즉석국수

일부 즉석국수에는 색소와 방부제가 들어있으므로 많이 오래 먹는것은 몸에 좋지 않다.

- 시금치

시금치속에 들어있는 시아산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아연, 칼슘과 결합하여 몸밖으로 배설되므로 아연, 칼슘결핍증을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에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지 말아

야 한다.

-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으므로 그의 지나친 섭취는 몸안의 콜린을 소모시켜 간세포기능이 떨어지게 한다.

- 굴

한사람이 하루에 3알이상 먹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들은 굴을 한번에 한알씩 먹는 것이 좋다. 굴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과 이빨이 아파나고 심한 경우 입안개양, 치달, 이물같은것이 생길수 있다.

- 돼지간

돼지간 1kg에는 콜레스테롤이 400mg 들어있으므로 리용결핍증을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에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지 말아